

정찬주 장편역사소설

개달음의 빛, 청자

천년비원을 품은 강진청자 이야기

신라말 탐진인 장보고는 중국 월주청자 기술을 강진에 들여온다.
이후 고려시대의 강진도공들은 고려청자를 천하제일의 비색(翡色)으로
승화 발전시킨다. 마침내 강진은 세계적인 청자의 성지가 된다.

활쏘기대회

늦가을 햇살이 탐진바다에 요란하게 쏟아졌다. 하늘과 바다는 푸른 비단을 한 가득 펼쳐놓은 듯 투명한 물빛 일색이었다. 멀리서 돛을 단 장삿배 한 척이 미산포로 들어오고 있었다. 탐라에서 추자도와 가리포를 거쳐 들어오는 장삿배였다. 대바구니와 초립, 젓갈 등을 실은 장삿배는 민어와 새우를 잡는 곳배와 달리 뱃머리가 날렵하고 돛이 컸다. 파문을 일으키는 장삿배 둘레에도 햇살이 떨어져 난반사했다. 마치 수천수만 마리의 물총새가 한꺼번에 솟구쳐 오르려고 날갯짓하는 것처럼 보였다. 미산포를 응시하던 이십대 중반의 한 청년이 눈이 부신 듯 손으로 눈을 가렸다.

청년은 큰 활을 메고 뱃머리에 서 있었다. 그의 체구는 장사꾼들보다 크고 우람했다. 늙은 장사꾼은 청년이 대구소 활쏘기대회에 가고 있다는 것을 눈치 챘다. 장사꾼들은 탐진현의 가장 큰 포구인 남당포를 자주 들락거렸기 때문에 대구소의 활쏘기대회를 환히 알고 있었다. 늙은 장삿꾼이 말했다.

“아직 일찍부터 시작하든디 늦지 않았는가?”

“가리포에서 올라온 벨 수 읍지라우.”

“공께 내 말은 하루 일찍 와부러야 한단 말이여.”

“알졌그만요. 어차든지 핑 가서 사정해봐야지라우.”

탐진현에서는 일 년에 두 번 활쏘기대회가 있었다. 봄에는 탐진현 치소 주관으로 열렸고, 늦가을에는 토기를 모아 품평하는 대구소 활터에서 시합이 벌어졌다. 젊은 장정들이 활쏘기대회에 참가하는 이유와 사연은 단순했다. 등수에 들면 쌀과 보리, 토기 등을 상으로 받거나 더러는 탐진현 치소의 군사로 특채되기도 했다. 활쏘기대회는 십여 년째 사오년 터울로 극심한 가뭄과 기근이 들곤 했으므로 장정들에게는 붙잡고 싶은 확실한 한 가닥 동아줄이었다.

봄철 내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가뭄은 논밭의 작물들을 참혹하게 말려 죽여 버렸다. 따라서 농사꾼들은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을 떠나 유랑민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한번 유랑민이 되어 떠나면 대부분은 살던 마을로 돌아오지 못했다. 바다로 나간 사람들은 먼 바닷가에서 해초를 뜯고 갯것을 찾는 보자기 신세로 전락해 당나라 해적인 당구(唐寇)에게 붙잡히어 노예로 팔려가기 일쑤였고, 물으로 떠난 사람들 중에 몇몇은 도적떼에 휩쓸리어 다시는 탐진 땅을 밟지 못했다.

청년은 장삿배가 미산포에 도착했지만 바로 하선하지 못했다. 미산포를 관장하는 별장이 장삿배에 올라 검문을 시작했다. 탐라 물품을 싣고 온 장사꾼들은 느긋했지만 청년은 마음이 급했다. 별장이 청년에게 물었다.

“으디 사는 누구여?”

“가리포에 온 궁복이라고 허그만요.”

“여그는 무신 일로 온 것이여?”

“활쏘기시합에 나갈라고라우.”

“시방 시작했을 것인디 늦었어. 얼릉 가보게.”

“아이고메!”

궁복은 장삿배에서 내리자마자 달렸다. 미산포에는 배들이 여남은 척 정박해 있었다. 대구소에서 검사를 마친 토기들을 싣고 멀리 떠날 배들이었다. 대구소는 여계산 산자락 마을 초입에 자리했다. 활터는 대구소 마을 위쪽의 언덕 밑에 있었다. 언덕 뒤는 바닷바람이 덜해 활쏘기에 알맞았다. 그러나 산자락을 타고 넘어 오는 하늬바람이나 삭풍은 어쩔 수 없었다. 대회에 참가한 젊은 장정들은 궁복의 생각보다 많았다. 활터 주변에 삼삼오오 모여서 화톳불을 피우고 있었다. 아마도 일찍 와서 지형을 익히고 있는 듯했다. 푸르스름한 화톳불 연기가 안개처럼 자욱했다. 궁복은 자신보다 어려 보이는 장정을 하나 붙들고 물었다.

“누구에게 말해야 활을 쏠 수 있을까?”

“위메, 진작에 조를 다 짜부렸는디요.”

“뭘 수가 읊을까?”

“지가 향리 어르신한테 말해볼께라우.”

향리는 대구소에 상주하는 마을 유지였다. 대구소는 몇몇 토족들이 공동으로 맡거나 때로는 추대를 받아 단독으로 소임을 맡았다. 이는 탐진현 치소도 마찬가지였다. 탐진현의 토성으로는 최(崔), 조(曹), 유(兪), 안(安), 정(鄭), 하(河) 등 여섯 개 성이 있는데, 현재는 정씨가 대구소를 관장했다.

“지 이름은 정년이라고 허그만이라.”

“정씨라든 우리 탐진현 토족이그만.”

“향리 어르신이 우리 집안 아재뻘이신께 한 번 사정해 볼께라우.”

“기도 엇비슷허고 누가 보든 자네와 나를 성제라고 허겄네. 하하하.”

“근디 성님 성씨는 뭇이요?”

“나는 일찍 조실부모허고 가리포에서 살았네. 아버지 성이 장(張)씨라는 것만 알았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읊네. 마실사람덜이 내가 활을 잘 쏘게 활보라고 불렀어. 그래서 한자로 궁복이 된 거네.”

“궁께 활 궁(弓)자에 복 복(福)자이그만요.”

“때가 되든 아부지 성을 따라서 장 머시기가 되야 허겠제잉.”

“지는 궁복이 좋그만요. 활이 복을 갖다줄 것인께요. 하하하.”

“그럴까? 지달려 봐야겠네.”

궁복은 십대 중반으로 보이는 정년을 따라갔다. 정년은 궁복 못지않게 키가 크고 눈이 화등잔만 했다. 향리는 활터 갈대움막 사정(射亭)에 앉아서 군사들을 불러 뭔가 지시하고 있었다. 정년이 향리에게 다가가 말했다.

“향리 어르신, 가리포에서 오니라고 늦어분 사람이 있그만요.”

“이미 조를 다 짜부렀는데 어처케 들어간다냐? 인자 내년 다음 대회에나 참가해야제.”

“내년에는 하루 일찍 와서 지달리겠습니다. 향리 나리.”

“활쏘기는 침부터 끝까지 공평해야 써. 누굴 봐줬다가는 이곳 토족덜이 가만 있지 않을 거네.”

향리의 말은 사실이였다. 이미 두 명씩 10조가 정해져 궁복이 들어갈 자리는 없었다. 벌써 두 개조는 사대(射臺)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다. 향리가 손짓만 하면 활쏘기대회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이였다. 정년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다.

“향리 어르신, 참가는 못하더라도 연전꾼이라도 시키든 으쩍께라우?”

“연전꾼?”

과녁 뒤에 피해 있다가 화살을 쏘고 명중을 알리는 노비를 연전꾼이라고 불렀다. 향리가 궁복을 바라보았다. 위험한 일일뿐더러 연전꾼이란 노비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궁복이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시합은 못 허드라도 연전꾼이라도 험시로 구경허겠습니다.”

“지형을 익혀두든 다음 대회에 도움이 될 것이네.”

향리가 미안한 듯 고개를 주억거리며 말했다. 그러자 정년이 앞장을 서서 과녁이 있는 곳으로 갔다. 과녁 뒤에는 흰 손깃발을 든 노비 한 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정년이 말했다.

“내가 아는 분이네. 잘 모시게.”

“예. 근디 연전꾼 허실 분은 아닌 것 같그만요.”

“연전꾼이라니, 말을 조심허게. 날아온 화살덜 중에 부실헌 것을 검사하러 온 분이네.”

“위폐, 그러시그만요.”

정년은 곧 사대로 돌아갔다. 그러자 연전꾼 노비가 궁복에게 말했다.

“저 쪽에서 흐건 기가 올라오면 화살이 날아와라우. 궁께 과녁 뒤에
앉아 겨셔야 해라우,”

과녁은 두 개였다. 사대에서는 한 사람씩 자기 순서에 따라서 활을
들었다. 다섯 발을 쏘면 1순(巡)이라고 하는데 대회 참가자들은 2순,
즉 10발을 쏘았다. 그리고 연전꾼은 두 개 조가 시합을 마칠 때마다
과녁 주변에 떨어진 화살을 수습해서 사대를 감독하는 군사에게 반납했다.

이윽고 사대 뒤에 있던 감독군사가 흰 손깃발을 흔들며 소리쳤다.
1조의 참가자가 활을 쏘기 시작했다. 긴장한 탓에 두 명의 참가자는
호흡을 고르지도 않고 2순을 급하게 날렸다. 과녁에서 나온 연전꾼이
흰 손깃발을 네 번씩 흔들며 명중을 알렸다.

“니 발 명중이요!”

두 사람은 각각 네 발을 명중했다. 두 참가자 모두 여섯 발은 과녁
옆으로 날아가고 말았다. 10점 만점에 4점이니 실력이 신통찮은 참가자
들이었다. 연전꾼이 수습한 활을 들고 와 사대 감독군사 앞에 놓았다.

향리가 감독군사에게 다가가 말했다.

“바람 땀시 명중률이 낮은가?”

“이 정도 바람은 늘 있그만요. 첨 참가허는 초짜덜인 거 같그만요.”

“허긴 바람을 감안해서 쏘야 고수라고 헐 수 있겠제잉.”

연전꾼은 벌써 과녁 뒤로 숨어 보이지 않았다. 2조는 더 못했다. 한 사람은 세 발을 명중했고, 한 사람은 10발을 모두 과녁 너머로 보내버렸다. 관전하고 있던 향리가 혀를 찼다.

“올해는 기대헐 것이 읍그만. 쫓쫓쫓.”

3조가 사대에 서 있는 동안 만덕산 쪽에서 하늬바람이 더 거세게 불어왔다. 이런 날은 아무리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명중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명중률이 저조하면 대기하고 있는 참가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 그래서인지 이후 4조, 5조도 마찬가지로였다. 할 수 없이 향리가 사대 감독군사를 불러 시합을 중지시켰다.

“안 되겠네. 바람이 쏘간 잦아지믄 재개허게.”

“예, 향리 나리.”

시합을 잠시 중지하겠다는 군사의 말을 듣고 온 연전꾼이 궁복에게 전해주었다.

“바람 땀시 오전을 넘길 모양입니다요.”

“정말이여?”

“감독군사님의 말을 시방 듣고 왔그만요.”

“오후 배로 가야 허는디.”

궁복은 오후에 추자도 가는 장삿배를 타고 가리포로 돌아가려고 했다. 가리포 치소 향리를 찾아가 군사가 되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가리포 향리는 대구소 활쏘기대회 성적을 보고 군사 채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던 것이다. 물론 대회에 참가를 못했으니 군사가 될 자격이 없어져 버렸지만, 그래도 이실직고하고 통사정은 해볼 셈이었다. 궁복의 활숨씨는 가리포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던 것이다.

향리의 결정대로 활쏘기대회는 오후로 미루어졌다. 그러나 오후에도 하늬바람은 잦아들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종잡을 수 없이 불었다. 바람은 탐진바다를 건너오는 하늬바람이었다가 여계산을 넘어오는 삭풍으로 돌변했다. 그래도 대구소 향리는 섬에서 온 참가자들을 배려하여 시합을 속행했다. 섬 출신들은 오후 늦게라도 돛배 등을 타고 돌아가야 했다.

오후에는 시합을 포기하는 참가자가 10조에서 나왔다. 연전꾼이 궁복에게 알려주었다. 아마도 섬에서 온 참가자임이 분명했다. 궁복은 순간 갈등했다. 그 자리에 들어가면 시간상 가리포 가는 장삿배는 탈 수 없었다. 그때 정년이 궁복에게 잔걸음으로 와서 말했다.

“포기한 참가자가 있는디 으쩍라우?”

“6조라든 몰라도 10조는 안되겠는디. 가리포로 돌아가야 헌께 말이여.”

“아따, 성님. 하룻밤 우리 집에서 자든 되지라. 시합헐라고 온 것이 아니요. 궁께 참가해부씨요. 삭풍이 불어서 쪼간 신경은 쓰이지만 말이요.”

“그럴까? 이런 삭풍은 아무것도 아니여. 삭풍에서 화살을 쬐야 진짜 실력이 나오제.”

궁복은 생각을 바꾸어 정년을 따라갔다. 다행히 삭풍은 더 거세지지는 않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과녁 앞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던 삭풍이 살랑살랑 불었다. 정년이 갈대움막 사정에 앉아 있는 향리에게 말했다.

“향리 어르신, 10조에서 한 사람 빠졌는디 그 자리에 들어가든 으쩍께라우?”

“자네는 몇 조인가?”

“지는 9조그만요.”

“고로코름 허게.”

궁복은 10조에서 한 참가자가 빠져나간 자리로 들어갔다. 장삿배를 놓치더라도 정년의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고 내일 떠나면 될 것 같았다. 삭풍이 순해진 덕분에 6조 이후부터는 오전 조와 달리 참가자들의 명중률이 조금씩 나아졌다.

9조에 든 정년은 사대에 올라가서 활을 잡았다. 그는 처음 세 발은 과녁 위와 옆으로 넘겨버렸고, 나머지 일곱 발은 명중을 시켰다. 궁복은 정년 바로 뒤에서 연전꾼이 명중이라고 흰 손깃발을 흔들 때마다 고개를 끄덕거렸다. 정년의 활 쏘는 자세는 다른 참가자들과 달랐다. 정년의 팔과 화살촉은 과녁 중간 지점과 일직선상이었다. 체구가 짱짱하고 완력이 센 사람만이 취할 수 있는 자세였다. 과녁 위를 조준해서 활을 쏘는 참가자는 팔이 가늘고 체구가 왜소한 사람들이었다.

마지막인 10조의 차례가 왔다. 궁복은 사대에 올라 활과 화살을 들고 심호흡을 했다. 또 한 참가자도 긴장한 얼굴로 사대에서 과녁을 가늠하고 있었다. 궁복의 자세는 정년과 흡사했다. 화살촉이 과녁의 중심을 향했고, 화살은 순식간에 번개처럼 과녁으로 날아가 돌멩이가 부딪치듯 퍽! 소리를 내며 명중했다. 놀랍게도 10발 모두 과녁의 중앙에 꽂혔다. 과녁 중앙을 맞으면 따로 관중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향리가 놀란 듯 사정에서 내려왔다. 점수를 매길 필요도 없이 우승은 궁복의 몫이었다. 향리가 말했다.

“오늘은 자네를 위한 날인 거 같으네. 가리포에서 왔다고 했등가?”

“예, 향리 나리.”

상은 3등까지만 주었다. 1등은 궁복이었고, 2등은 정년, 3등은 여섯 발을 맞춘 세 사람에게 공동으로 돌아갔다. 1등은 부상으로 쌀 한 가마니와 토기, 2등은 보리쌀 한 가마니와 토기, 3등은 옥수수 한 포대와 토기가 주어졌다. 시상식이 끝나자 활터는 순식간에 텅 비었다. 북적거리던 참가자들이 어디론가 흩어져버렸다. 때마침 삭풍이 다시 불어와 활터는 과녁이 희미하게 보일 정도로 흙먼지가 일었다. 궁복이 쌀 한 가마니를 덥석 둘러메자 정년이 말했다.

“성님, 우리 집으로 가서 목지라우.”

“고맙네.”

“넷가 질을 따라 한참 올라가든 토기가마덜이 보이는데 거그 마실에 우리 집이 있그만요.”

궁복은 정년을 따라 큰 넷가 산길을 걸었다. 정년은 부상으로 받은 보리쌀 한 가마니를 둘러멘 채 한 손에는 토기 꾸러미를 들고 있었다. 큰 내를 따라 오 리쯤 올라가자 물길이 두 갈래로 갈라졌다. 정년의 집은 계곡물이 합수하는 오른쪽 작은 개울가에 있었다. 마을의 초가들은 남향반이로 꼬막처럼 옹기종기 붙어 있었다. <계속>